



# 모바일 속으로 떠나는 설원과 그린 스포츠

클\_임영모 CTCity 기획실장

**2005**년 1월 중순이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 달력상으로는 분명 겨울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겨울답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올 겨울이 워낙 눈에 인색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날씨는 삼한사온(三寒四溫)이라는 말보다는 칠한이온(七寒二溫)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계속 춥지만 한데, 정작 그나마 겨울을 즐길 수 있게 만드는 눈마저 내리지 않으니 너무 삭막할 따름이다.

주위에 있는 스키와 보드 매니아들은 더더욱 울상이다. 일 년 내내 이 시즌만을 학수고대했던만, 막상 겨울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눈 위에서 즐기지 못했다는 것. 매년 인공눈 위에서 흥내만 내다가 오게 되다보니 소위 말하는 '설질(雪質)'이 영 시원찮다고들 한 마디씩 한다. 개인적으로 아는 후배 한 명은 스노우보드 매니아인데 결국 MSN 대화명이 '보드는 마음 속에 있는 거죠'로 바꾸어 달면서 올 시즌을 포기하기까지 했다.

이번 모바일콘텐츠리뷰에서는 설질에 불만을 품고 만족하지 못했던 분들과, 바쁜 일과 중에 차마 스키장이 마음 속에만 있으며 스키장 다녀왔다는 소리를 할라치면 뻥뻥했다는 듯 쳐다보는 분들을 위해서 설원 스포츠라는 타이틀로 게임 소개를 잡았다. 아울러 너무 추워서 그린에 나가지 못하는 골프 매니아를 위한 게임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마음 속에만 두시지 말고 가볍게 모바일로 기분이라도 내어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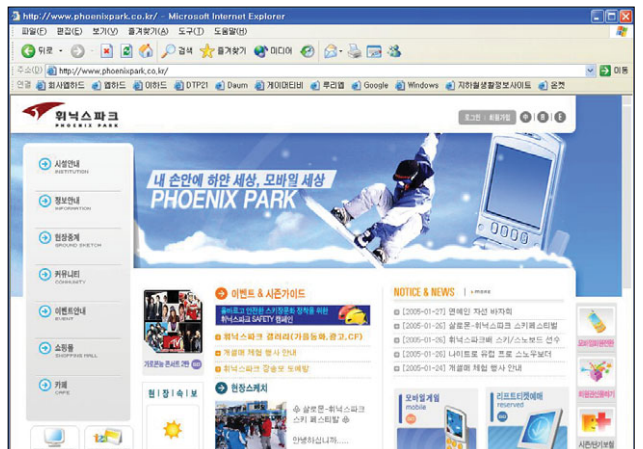
## 휘닉스와 모바일 게임이 만났다

남은 겨울, 강원도 봉평에 있는 휘닉스파크를 갈 계획이라면 우선 홈페이지(<http://www.phoenixpark.co.kr/>)를 들어가 보도록 하자. 휘

닉스파크에서는 스키어와 보더를 위해서 모바일 회원권 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각종 관련 콘텐츠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모바일 회원권이다.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모바일 회원권 다운받기를 선택하거나, 휴대폰으로 \*\*7575\*를 눌러 착신되는 문자메시지에 따라 통화 연결을 하면 올해 10월 말까지 휘닉스파크 관련 시설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은 2,000원으로 기간 내 무한정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SKT와 KTF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블루모바일에서 개발공급하고



휘닉스파크를 갈 계획이라면 모바일콘텐츠에 투자하라?



2005 스노우 보드는 스토리 형식을 갖추고 있다.



보드에 따라 성능이 달라진다. 열심히 능력치를 얻어 좋은 보드를 정만해보자.



고난도의 에어트릭을 구사하는 모습. 정말 저렇게 창공을 날아올라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스키 점프 게임과 에어리얼 게임을 함께 제공하는 스키 런 2005.



스토리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대회를 출전해 점점 상위 대회로 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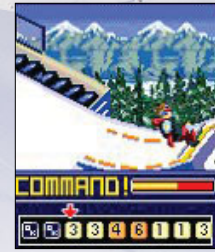
물론 점프를 통한 도약도 비거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공중에 머무는 동안 숫자 키패드를 활용해야 하는 미션이 나온다.



게임을 통해 상금을 모았으면 더 좋은 기량을 보이기 위해 장비에 투자하자.



프리스타일 에어리얼 게임. 아래 나와 있는 숫자 커맨드를 재빨리 누르면 OK!

있는 '2005 스노우보드' 라는 게임이다. 2005 스노우보드는 실제 스노우보드 경기의 룰과 점수 채택 방식을 그대로 게임에 적용하고,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할 때마다 얻게 되는 고급 스킵과 보드 아이템 등의 변화를 통해 스노우보드 기술 및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이 게임에서 채택한 종목은 하프파이프 게임으로, 점프 타이밍과 에어트릭 구사 등을 통해 점수를 얻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통해 5개의 일반대회를 석권한 후 월드챔피언쉽과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하게 되며, 특히 그랑프리 대회는 세미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용자간 대전모드를 취하고 있어 실제 사용자의 플레이 정보를 이용해 일주일동안 가장 많은 승수를 쌓아올린 실제 사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갖추고 있다.

게임 시작에서 스타트하는 속도를 정하게 되며, 상하 키를 눌러 가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하프 파이프의 경계 부분에 이르렀을 때 숫자 키패드를 눌러 에어트릭을 구사하게 되는데, 속도가 느릴 때에는 낮은 숫자 키를 누르고, 속도가 충분할 때에는 높은 숫자 키를 눌러 점수를 얻게 된다. 각 라운드의 점수는 점프동작과 에어트릭, 평균높이 및 착지동작과 이동속도에 대해서 부과된 점수를 합산해 5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기게 되며 이를 통해 대회 성적이 결정된다.

고난도의 게임에서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은 9가지의 에어트릭 부분으로 Back Flip, Nose Grab, Mute 540°, Lien Air, meianchollie 등의 기술을 보이게 된다.

또한 이 게임과 함께 스노우보드 에어트릭에 관련된 동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므로 스노우보드 매니아라면 휴대폰에 넣어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 보드 장면을 즐길 수 있으며, 휘닉스파크 모바일 회원권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므로 1석 3조라 할 수 있다. 자, 이제 2005 스노우

보드와 함께 보드의 세계로 빠져보자.

### 스키를 타고 새처럼 날아볼까

요즘에는 스노우보드 인구가 급증했지만, 뭐니뭐니해도 겨울철 스포츠의 대명사는 스키라고 할 수 있다.

스키에 관련된 모바일 게임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스키런 (SKI RUN) 2005' 라는 게임이다. 이 게임은 크게 스키 점프 모드와 프리스타일 에어리얼 모드로 나뉘어져 있고, 이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주어지는 게임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돼 있다.

스키 점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스피드'. 가속구간에서 점프구간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스피드를 늘려야만 멀리 점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점프 타이밍으로, 점프구간에 이르러서 어느 시점에 점프를 하느냐에 따라서 비거리가 달라지게 된다.

체공시간에는 숫자 키버튼을 활용해야 하는 미션이 주어지며, 이를 착지 전까지 최대한 수행하면 이에 대한 보너스 점수를 부가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점프한 거리와 자세 점수로 평가하며, 착지 성공시 콤보에 대한 보너스 점수를 주며, 총 2회 점프 중 높은 점수를 가지고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경기를 통해 얻은 상금으로 헬멧, 스키복, 스키 등을 상점에서 구입하며, 이를 통해 능력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스키하의는 점프 능력에, 스키 장비는 스피드 게이지의 최대값에 영향을 미치는 등 아이템의 역할도 상당히 게임에 많이 반영된다.

기술점프는 점프한 상태에서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게임 방식인데, 게임 요령은 점프하는 순간 하단에 주어지는 커맨드에 맞춰서 재빨리 숫자 키패드를 순서에 맞게 누르는 형태로 돼 있다.

**엄동설한에 필드가 그리워진다면 모바일골프!**

원래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은 날씨가 춥든 덥든,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상관없이 그린을 향한 끝없는 열망을 보이게 마련. 하지만, 영하1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의 골프 게임은 아무리 좋은 운동이고 여가 생활이라지만 무리가 따라 보인다.

최근 골프 게임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PC 온라인게임 부분에 있어서도 팡야, 샷 온라인, 당신은 골프왕, 프리골프 등 여러 게임이 제공되고 있으며, 게임들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어서 사용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국내 골퍼들의 PGA, LPGA 활약상 역시 이러한 인기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모바일게임에 있어서도 골프 게임 히트작들이 줄줄이 쏟아지면서, 이제는 굳이 필드에 나가지 않더라도 컴퓨터 앞에서, 버스나 전철 안에서 가볍게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중 포켓스페이스에서 개발 보급하고 있는 '포켓골프'는 전작 '포켓골프'의 히트를 통한 인지도 확대와 고정 고객 확보를 통해 출시와 더불어 곧바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내고 있다. 골프의 특성상 맵을 어떻게 보여주는냐에 따라 사용자가 느끼는 현장감이라는 것이 좌우되는데, 화면 스크롤 방식에 있어 타일 단위의 스크롤 방식을 채용해 이전 방식의 화면 단위 스크롤의 맛깔함을 줄였다. 또한, 새로운 코스의 설계에 신경을 많이 써서 단순하게 고정된 방식으로 홀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취향에 맞춰서 우회 접근 내지 지름길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획됐다.

골프 게임에 덧붙여 육성, 랭킹, 등급 시스템을 넣어 사용자 목표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션 시스템과 대회 진출 개념 등을 통해 성취감을 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온라인으로 즐기는 골프게임과 비교한다면 속도감이나 정밀도나 현장감 등 모든 부분에서 당연히 뒤쳐지는 게 사실이지만, 1인칭 시점 주관의 베이스스토리라인이나 오프라인 게임의 요소(미션, 랭킹 등의 절대평가)는 온라인게임을 통해서 느낄 수 없었던 부분을 채우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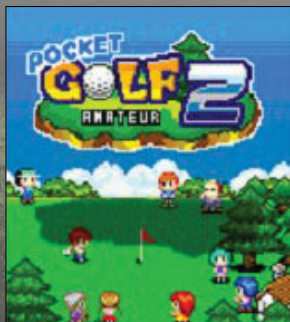


모바일 골프 게임 '포켓골프2'.

**키 입력 타이밍을 중요시하는 게임**

필자는 버릇처럼 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용자들이 즐기는 모바일게임을 어깨 너머로 살펴보곤 한다. 좋지 않은 버릇일 수도 있지만, 옆 사람 혹은 앞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게임을 즐기는지 호기심이 발동한다.

예전에는 고스톱, 맞고 등 겜블류의 게임과 도형 및 모양 맞추기 등의 퍼즐류의 게임, 그 외 격투기 게임과 RPG 게임 등이 대세를 이뤘으나, 요즘에는 야구와 골프와 같은 스포츠 컨셉의 게임들도 많이 즐기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성별로 이를 분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나, 겜블류는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들 좋아하는 것 같고, 아기자기한 퍼즐류는 여성 쪽에서, 격투기 및 RPG 분야는 남성 쪽에서 많이 이용함을 알 수 있다. 스포츠 게임에서는 야구 게임을 즐기는 남성 사용자를 많이



전작의 흥행 여세를 몰아 새롭게 히트계 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포켓골프2



포켓골프2의 전작인 포켓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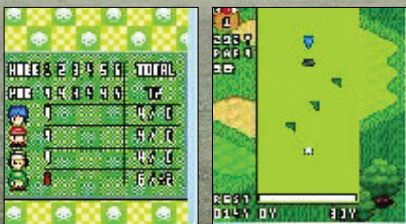


풍향과 풍속을 확인하고, 비거리에 맞춰 클럽을 선택하고, 스윙 파워와 임팩트 정확성을 고려해 샷을 날린다.



온라인골프 게임 '핑야'.

봤고, 골프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여성 사용자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이번에 소개한 세 가지 게임은 각기 분야가 다른 스포츠류 게임이지만 공통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게임들은 일반적인 게임 요소 중 '정확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임이라 할 수 있다. 다른 게임에서 볼 수 있는 행운적 요소나 고도의 두뇌 플레이, 전략과 계산 등의 요소는 적거나 없지만, 키버튼 입력 순간의 '정확성' 부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임 진행의 열쇠가 된다. 고려해 봐야 할 문제는 휴대폰 환경에 있어 키버튼 입력값을 애플리케이션이 재각각각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부분이다. 흔히 말하는 '키 딜레이'라는 입력 순간과 애플리케이션의 반응에 있어서의 시간차 부분은 조금만 예민한 사용자라면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휴대폰은 게임을 즐기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어 프로필을 보면 현재 등수와 개인 능력치 등이 나온다.

을 즐기는 와중에도 계속 전화가 오지는 않았는지 문자메시지는 없는지 혹시 스케줄링 돼 있는 약속 시간은 없는지를 계속 체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도 게임의 '정확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류 게임을 하다보면 자신의 폰에 맞는 키 딜레이 값에 적응해 조금씩 미리 버튼을 누르는 진화를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요소가 자칫 잘못하면 게임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러한 스포츠류 게임의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정확성' 이외의 요소를 만들기 위해 성장 컨셉이나 아이템 교체, 등급 상승 등의 방식으로 나머지 게임적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 모바일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환경적 단점 부분은 최소화하고 보완하는 것이 스포츠류 게임으로 시장에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방법일 거라 생각한다. 🎯

